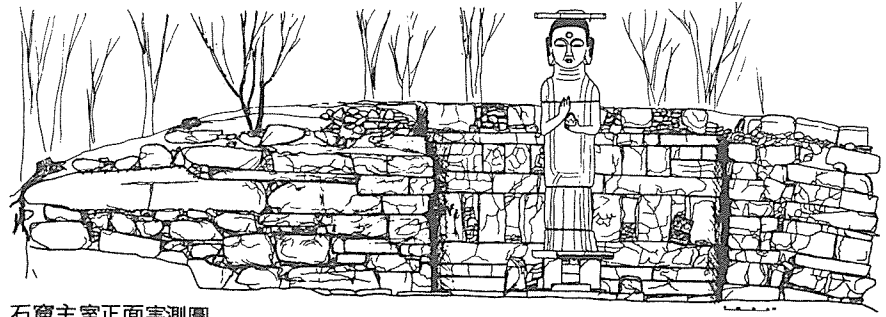


鷄立嶺의 彌勒大院 (下)

申 榮 勳 -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石窟主室正面實測圖

1

석굴은 본당과 前室로 구성되었다. 본당(主室)은 큼직한 돌을 써서 쌓아 올린 石壁과 그 위에 나무로 架構하여 지붕을 구성하였던 독특한 구조이다. 본당 앞쪽에 따로 前室을 구조하였다. 용도는 불공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拜禮의 공간이지만 구조상으로는 본당 목조건물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되었다.

본당(主室)의 평면은 네모반듯하나 앞뒤가 좌우의 길이보다 약간 긴 長方形이다. 그 평면에 잘 다듬은 板石을 깔았다. 널빤지돌을 큼직큼직하게 깎아 깔았으므로 水氣와의 관계가 있다. 굴의 가까이와 굴 밑으로 흐르고 있는 물기로 바닥은 영향을 받는다. 겨울엔 찬기를 가시게 해주는 대신에 여름엔 찬맛을 풍겨준다. 본당의 높은 石壁은 습기로 結露된다. 더운 여름이면 더욱 그렇다. 그 이슬은 石壁을 타고 흘러 내린다. 아니면 습기가 다른 부분에 배어든다. 그러나 바닥이 차면 이슬은 바닥 찬곳으로 물린다. 물의

생태이다. 더운날 차가운 물을 갖 길 어다 놓은 주전자에 땀방울 같이 이슬이 맺는 원리와 같다. 찬바닥에 물기가 모인다. 그 물기는 흐르는 물의 유동에 자극되어 낮은 자리로 몰려 밖으로 빠져 나간다.

본당의 관석과 그 구조에는 이런 고려가 충분히 검토되어 있다.

평면 중심부에 본존상이 안치되었다. 10m나 되는 거대한 立像이다. 키가 크고 몸체가 큰만큼 서있는 臺座 또한 큼직하다. 그 대좌가 평면의 중심부에 있지 않고 중심선에서 약간 뒤쪽으로 물러선 자리에 있다. 공간활용의 편의를 위한 방법인데 이 법식은 예로부터 이어왔고 吐舍山의 石佛寺에서도 정확하게 구도되어 있다.

여기의 대좌는 밑바탕이 네모진 것이다. 석굴암은 굴의 平面이 둥글어서 圓形臺座를 造成하였는데 이 본당은 네모진 평면이므로 대좌의 윤곽도 方形이 되었다. 方形의 臺石 위에 隆起된 둥근 臺座를 마련하고 立像을 세웠다.

대좌의 네귀퉁이 외곽에 柱礎石들이 布置되어 있다. 앞쪽 좌우의 주춧돌은 둥근기둥을 세우게 된 柱座와 네모진 礎盤으로 구성된 것인데 柱座는 隆起하여서 솟아 올랐다. 뒷쪽의 두 주춧돌은 좌우의 모양이 다르다. 하나는 네모진 板石形의 것으로 아무런 意匠이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隆起部に 연꽃이 장식되었다. 또 柱座중앙을 둥그렇게 파내어서 홈이 생겼다 (圖1 참조).

주좌에 구멍을 파는 주초는 기둥이 산기둥으로 따로 서서 밀둥이 다른 구조들과 동떨어져 있을 때 설치된다. 기둥뿌리의 요동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行閣(廻廊) 등에서는 여닫는 문이 있어 충격이 있는 부분, 문기둥 다음의 기둥 등에 그런 주초를 설치해 준다.

이들 네 주초는 立像의 높이 이상으로 솟아 올라야 할 高柱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들 네 주춧돌의 존재로 四天柱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法住寺捌相殿(忠北 報恩郡 俗離山 국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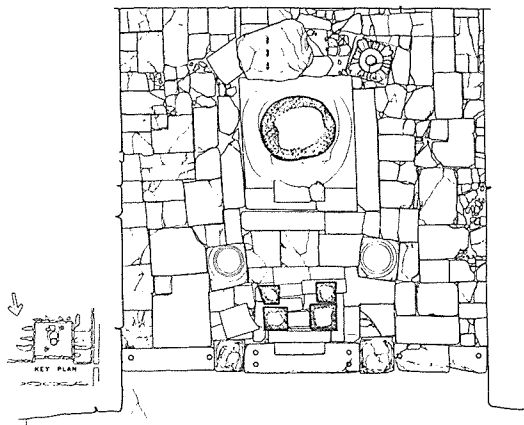


圖 1. 主室·前室 바닥平面의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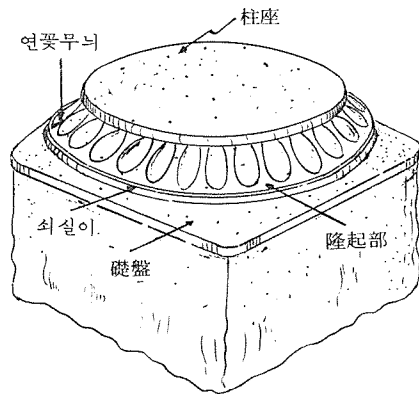


圖 2. 주춧돌의 세부명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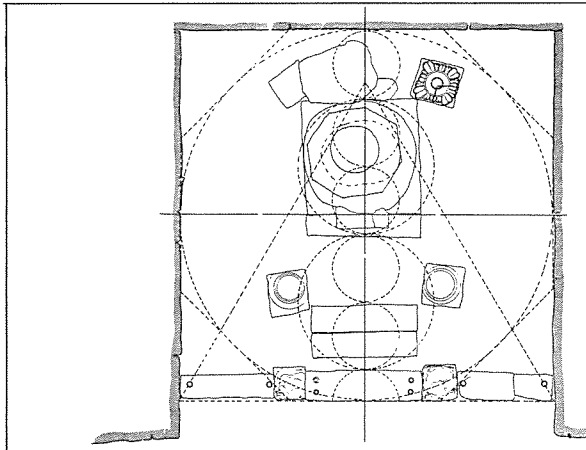


圖 3. 石窟主室의 平面構成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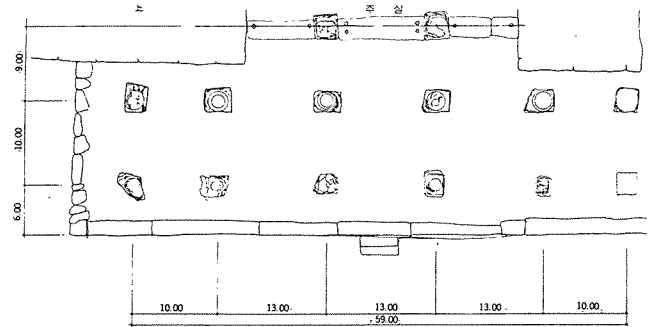


圖 56: 前室平面圖

圖 4. 前室의 平面圖

55호)와 같은 方形平面의 高層建物를 짓는데 中추적인 구조물이다.

본당 앞쪽으로 前室과의 구획이 있다. 거기에 높은 주초석을 세우고 큰 직한 돌로 고벽이를 만들었다. 이 키가 높은 주초석에도 기둥을 세웠던 것이다.

主室의 평면구성의 설정을 고려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던 것일까를 알기 위하여 실측한 수치를 기반 삼아 분석하여 보았더니 대략 圖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解析이 규명되었다. 아주 미묘하며 數理에 의한 意圖가 분명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數理應用的 예는 다른 구조물에서도 찾을 수 있음은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런 자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옛사람의 識見을 파악해 볼 수 있다.

前室의 平面은 正面이 5칸, 측면은 單間이다. 정면 御間과 左右挾間은 13尺이나 되는 넓은 간격이고 좌우퇴간은 10척식이다. 御間은 主室의 높은 주초석과 같은 軸上에 있어서 前室 5

간은 그 좌우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前室과 主室과의 平面을 접합한 상태로 작도하여 보면 圖 5와 같은 모습이 된다. 여기에 기록된 數値는 실측에서 얻은 것인데 鋼尺으로 三回測定하여 평균을 얻은 수치이다. 단위는 曲尺이다.

石壁으로 쌓은 벽체 위를 올라가 보면 넓은 平地가 거기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石壁에 따라 巨石들이 바닥에 배열되어 있는데 柱礎로 쓰던 흔적을 남긴 것도 있다. 그것들을 찾아보면 木造架構를 위하여 柱礎가 이上部에 布置되었음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돌들의 현황을 근거삼아 없어진 부분까지를 재현시켜 작도해 보면 圖 6과 같은 구성이 된다.

一間을 이루는 外陣이 구성될 수 있도록 초석들이 배열되어 있다. 이는 前室의 五間과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구조시 主室과 前室은 함께 結構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石室의 立面은 圖 7에서 보듯이 石壁 높이가 대단하다. 약 7m이다. 曲

尺으로의 실측치가 21尺 가량이다. 본 존상의 가슴 높이쯤 까지 石壁을 쌓았다. 木造架構의 外陣주초가 그 위에 定礎되어 있으므로 木造建物의 기둥이 여기로 부터 세워진다. 그래서 이 石窟은 木石의 共同構造體이다.

石壁의 구성은 龕室造成을 위주로 하였다. 밑으로 3段의 기단을 쌓았다. 10톤이 넘는 巨石들이 여기에 사용되었다. 3段의 기단 위로 方柱를 세웠다. 사이를 두고 세웠는데 그 사이가 감실(龕室)이 된다. 감실에는 千佛을 모셨는지 남아 있는 것에서 보면 두분 부처를 並坐시킨 方形石材를 중첩시켜 감실에 안치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본존상의 바로 뒤의 넓은 간격의 감실(지금은 중간에 間石을 끼워 보충시켰음)을 따로 만든 것만 다르다. 여기에는 어떤 尊像을 봉안하였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전에 국민학교 정문앞에 옮겨 놓았던 半跏像이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나 아닌가 해서 지난해 발굴작업을 하는 겨를에 굴내로 옮겨다 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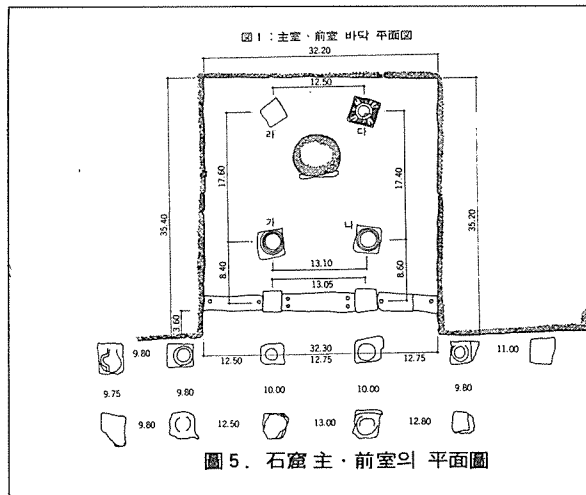


圖 5. 石窟主·前室의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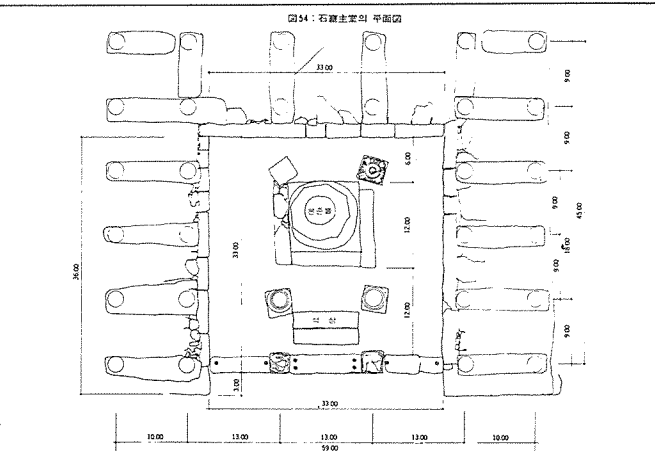


圖 6. 石窟主室의 礎石配列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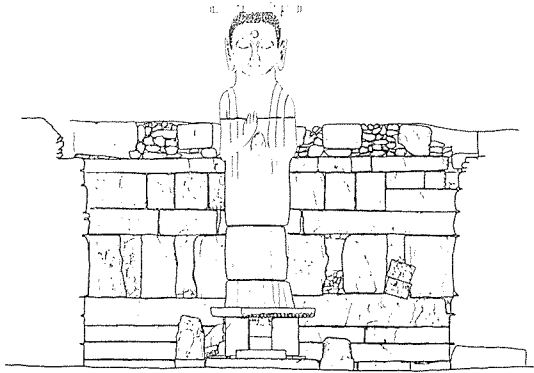


圖 7. 石窟主室立面的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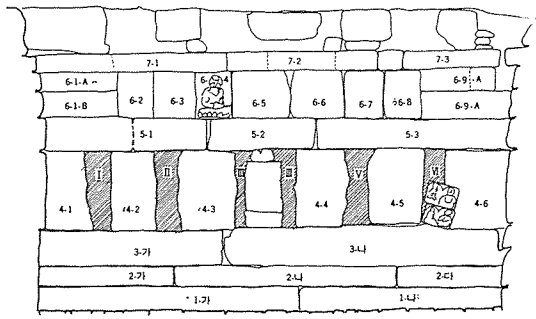


圖 9 : 主室 南壁 構成 現況

圖 8. 主室의 남쪽벽 구성현황도

겨루어 보았으나 거기에 장치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실 위로 장대석이 이맛돌처럼 건너 갔다. 그 위에 板石을 세워 並列시킨 구성이 있고 如來坐像을 浮彫한 것도 그중에 있다. 그 위로 다시 橫架하는 이맛돌이 한켜 있고 그 위로 外陣의 초석이 될 巨石들이 구조되었다. 엄청난 石材를 중첩하여 구성한 石壁이다. 이런 석벽이 前面만 제외하곤 3 면에 만들어졌다.

石壁의 높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平面에서 시도하였듯이 立面에서도 解析을 시도하였다.

石壁은 本尊의 높이와 차이가 있다. 석벽 높이는 본존의 가슴과 정도의 높이이다. 본존이 光背(法堂內에 있을 때의 본존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없었으리라고 생각됨. 대신에 광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를 갖었다고 할 때의 전체높이를 설정하면 가슴과 높이는 4/6에 해당한다. 圖 9에서 볼 수 있는 작은 圓의 數에서 그점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감실의 方柱 높이까지

의 2 배에 해당한다. 석벽 전체 높이의 1/2이 감실 기둥의 머리높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역시 평면에서 마찬가지로 의도된 계산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을 이 해석을 통하여 感知할 수 있다.

석굴이 下石上木의 구조이며 상부의 木造는 結構된 모습이 法堂에 상응한 것이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현존하는 주초석들에 중첩되는 법당·전실까지를 망라한 법당을 구도하여 보았다. 어떤 건물이 당초에 의도되었던 것일까를 알아보기 위한 방편이다. 대략 圖10에서 구성하여 본바와 같은 형태가 되리라는 생각이다. 四天柱가 중추가 되며 內은 通間이고 밖에서 보아서는 2層이 되어 보이는 구조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런 外觀은 變想圖(佛經의 삽도에서 볼 수 있는 上代法堂과 大同小異하다. 또 吐含山 石窟의 창건당초 外景과도 큰 차이 없음을 보여준다. 아직 아무도 이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바 없기 때문에 이 시도는 매우 恣意的인 것이어서 앞으로

가다듬어야 할 여지는 많다.

이 석굴에는 石窟寺院 本堂 말고도 寶物 95號로 지정된 5 층석탑, 忠北地方有形文化財 19號 석등, 33호의 3 층석탑이 있고 지정되지 않았지만 幢竿支柱와 石獸, 佛像臺座石 등이 있다. 石窟內의 本尊立像은 寶物 36號이다. 그의 법당을 지었던 건물터와 석굴 뒤편 산기슭에 돌을 다듬던 活石場에 깎다가 둔 미완성의 제품들이 있다. 또 석굴 앞쪽에는 엄청나게 큰 거북돌과 또다른 석등이 있다. 거북돌은 비석을 세웠던 龜趺(귀부)인데 큰거북등에 새끼거북을 또 새겨서 보는 사람들을 호뭇하게 만든다. 보는 이마다 쓰다듬는 바람에 보존을 위하여 둘레에 철책을 쳤다.

5 층석탑의 기단은 그자리에 있던 巨岩을 그대로 깎아 만든 통돌이다. 우리나라에 석탑이 수없이 많아도 이런 구조물은 이 탑을 두고는 다신 없을 것이다. 탑 위로 相輪을 설치하였던 鉄竿이 남아 있다.

3 층석탑은 굴에서 약간 떨어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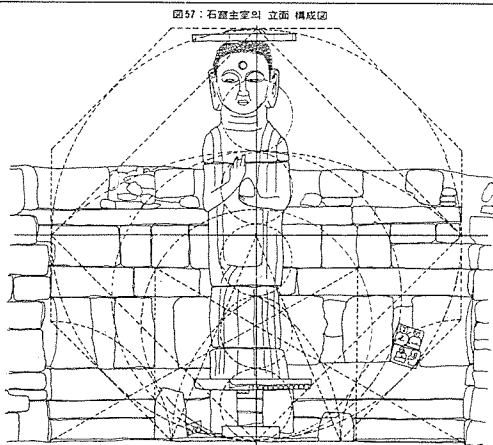


圖 9. 主室의 立面 構成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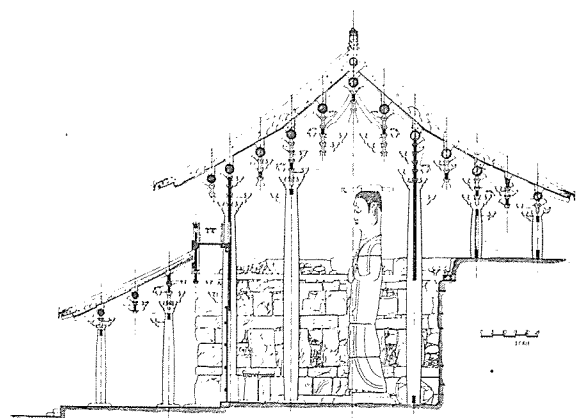


圖10. 法堂의 構成 推定斷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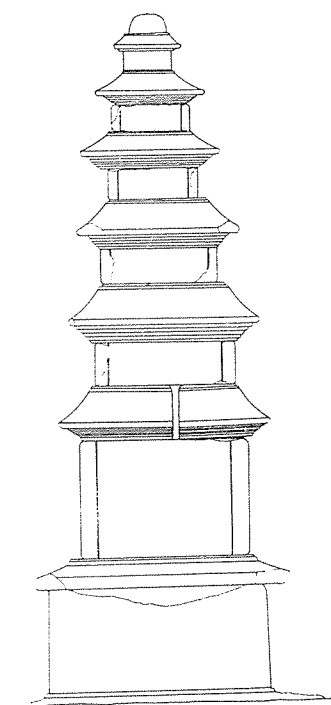


圖11. 五層石塔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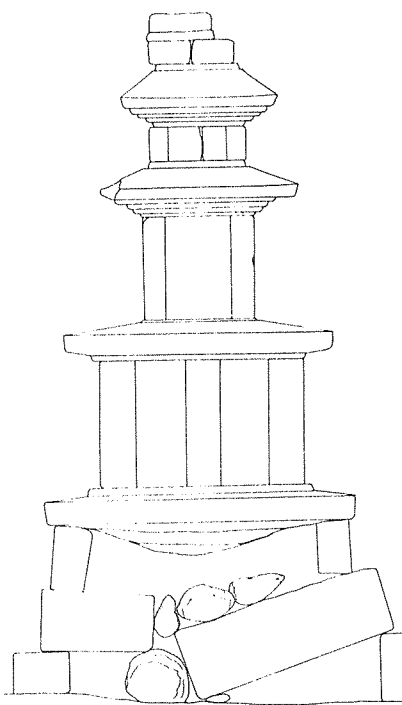


圖12. 三層石塔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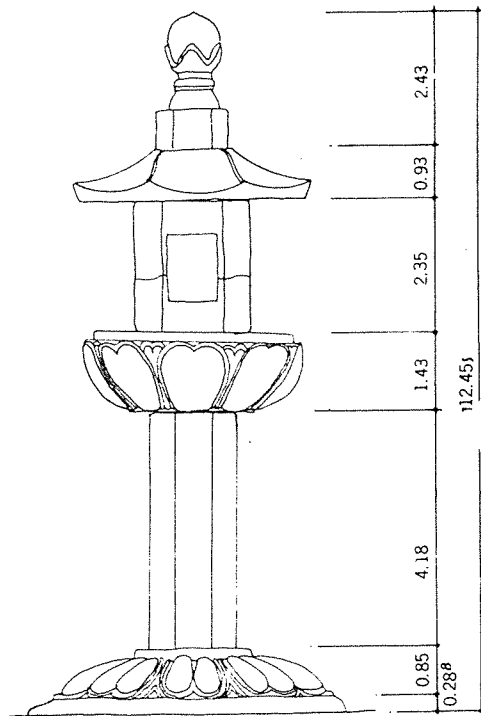


圖13. 八角石燈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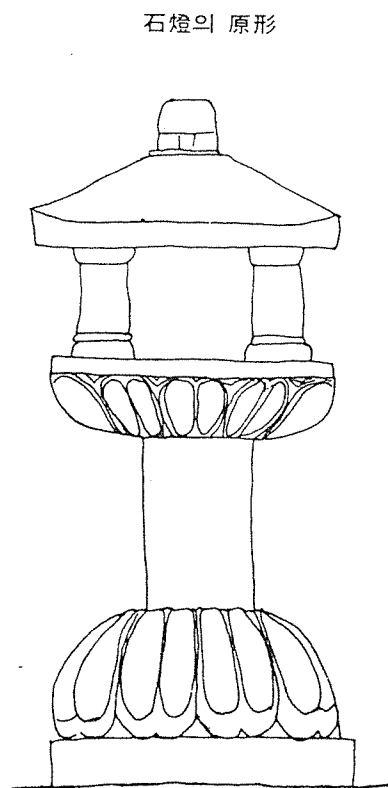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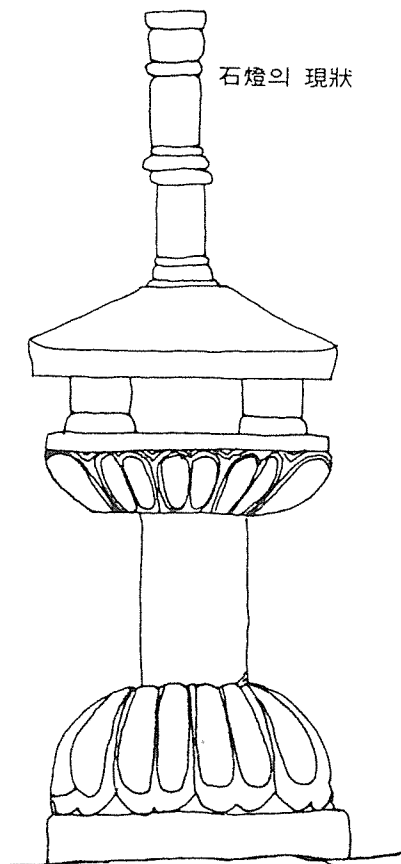


圖14. 四角石燈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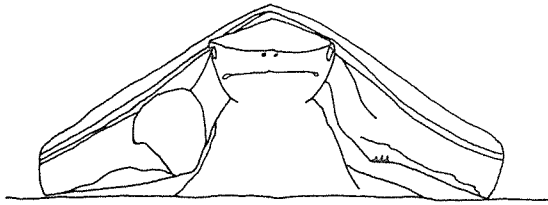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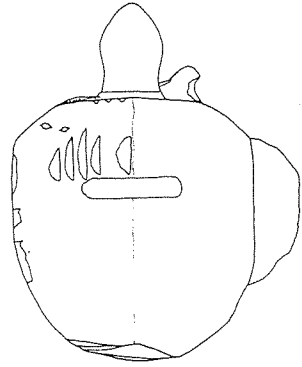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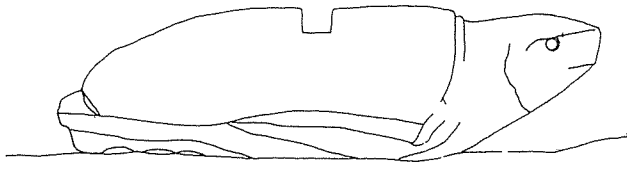


圖15. 龜趺의 形狀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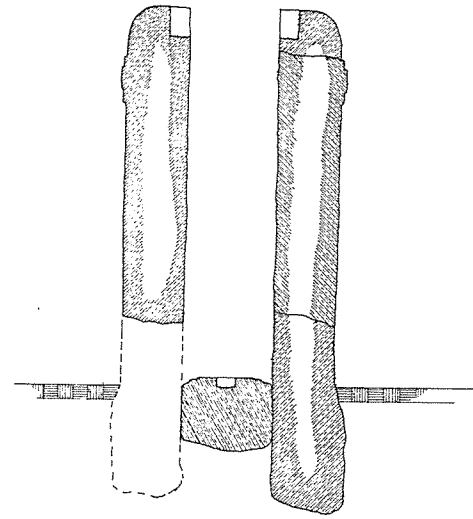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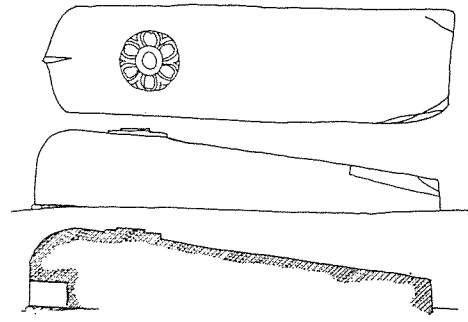


圖16. 幢竿支柱現況과 原形圖

리에 있다.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해체하여 다시 세웠다. 圖12가 그 모습이다(해체 전의 모습). 신라형의 양식을 지녔다. 地方文化財로 지정된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의 유형을 답습한 것이다. 바탕돌에 둥근 隆起部를 만들고 연꽃을 장식하였다. 그 중심에 장부구멍을 파고 8각의 기둥을 세우고 중대석을 얹어 거기에 8각의 火舎石을 놓아 蓋石을 덮은 형태이다. 연꽃의 무늬나 화사석의 모양, 전체의 비례감 등에서 신라통일기의 작품과는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4각석등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지던 것이다. 고려적인 특색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은진미륵 앞의 석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은 후삼국시대로부터 발현하여 고려초엽엔 벌써 首都에서 떨어진 논산지역에

까지 파급되어 있었다. 여기의 석등은 그런 시대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북들은 귀부(龜趺)라 부른다. 비석을 세우기 위한 받침돌이다. 거대한 바위를 그대로 다듬어 만들었다. 그 규모론 전국에서 제일 큰 것이리라고 생각된다. 등에 비석을 세웠던 자리가 홈으로 파져 있고 새끼거북 두마리가 조각되어 있는데 그 옆에 용도를 알 수 없는 가공이 있다. 여기에 비석이 있었다면 그것도 규모가 적지 않았을 터이나 지금의 존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파편이라도 없나 해서 주변을 탐색해 보았지만 지금까지는 별반 소득이 없었다. 언젠간 찾아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幢竿支柱는 기둥 두개가 一組가 되는 것이다. 가운데에 竿柱를 끼울 받

침대를 놓고 그 좌우에 큼직한 돌기둥을 올려 세워 높직한 당간을 넘어 지지 않도록 지탱한다. 그 돌기둥이 부러졌다. 부러진 것이 땅에 묻혀 있었다. 그것이 노출되었는데 연꽃무늬를 장식한 아름다운 것이었다. 이런 연꽃무늬를 당간에 새긴 예는 경주의 普門寺址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의 제작시기를 羅末麗初로 잡고 있다. 여기의 것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의 작품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 石窟의 造成시기를 王建太祖가 건원과 겨루던 시기, 즉 910년대로 추정하고 있음과 많이 부합된다.

水安堡에 휴양차 가시는 분들은 멀리 않은 곳에 있는 이 역사의 고장을 찾아가 보시도록 권장하고 싶다.